

특별기고

변화 위한 열린자세 지향해야

조계종 중흥에는 '석존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추종하고 있으며 정법을 통해서 실천할 것임을 선언' 하고 있다. 종지는 종단에서 추구하는 석존의 가르침이고, 중흥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실천방법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천방법을 선택해 왔다.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승불교, 동아시아 불교적 특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염불, 기도, 절, 주례 등 수행법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종지종풍 구현 방법을 놓고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견해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견해들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종단의 수행과 실행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종지종풍 구현 곳곳 충돌 생활 속 실천 방안 필요

조계종단의 종지종풍을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전통적인 방법은 법회와 설법이다. 법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설법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협의 변화를 주지시키고, 수행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의 전통적 법회에 위기가 온 것이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포교적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지종풍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현재 당면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정보사회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보기기의 개발과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 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매체의 활용과 동시에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포교 방법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종단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포교인력의 양성이다. 포교는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신도의 포교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조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도 교육과 실행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종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조적 태도로 접근한다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불교의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각 사찰에서 지역복지 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찰마다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들고 신도들이 참여한다면 낙후된 불교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복지포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세계화된 불교 리더십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종단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문화와 수행이다. 문화적 체험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템플스테이 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와 같은 체험효과 때문이다. 다만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다. 오온과 육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문화포교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의 가장 큰 장점은 서구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행전통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는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수행포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케 하려면 명상이라는 가치중립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간화선의 원리를 바탕으로 행복명상, 치유명상, 자비명상, 생활명상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수행포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조계종의 정체성과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적합하게 적응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열린 태도와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도들의 헌신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교의 사회적 가치와 포교 효과를 증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한해동안 개최한 대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나선 발제자들도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간화선이 조계종의 전부는 아니다

학담 스님 11월 대토론회서 간화선 지상주의 정면 비판

“조계종 정체성이 간화선인가? 중도들이 간화선을 강박관념과 같이 되뇌이는 것은 종단의 실천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조계종 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서는 조계종이 대표 수행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간화선’의 골격을 넘어 다양한 수행법을 반영한 방법론이 중도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올 한해 동안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마련된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에서 발제자로 나선 대승사 주지 학담 스님은 210페이지에 달하는 발제문을 통해 간화선 중심의 조계종

풍토를 비판했다. 학담 스님은 11월 23일 주제발표 ‘조계종의 연기론적 해체와 건설’을 통해 “‘간화선’ 명명 하에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론이 정말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묻고 “현 시대에 맞는 대승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포괄적 전승체계가 중국 중심적 종파주의, 범종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간화의 실천정신으로 투철하게 사는 자라면 간화선을 교조적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며 현재의 선이 종파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학담 스님은 “부처님 당시 간화선이라는 전승 조계종 안의 수많은 전승 요인을 하나로 절대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실천과 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의 이런 주장은 현재 조계종이 중국

- 현대 맞는 대승선 필요
부처님 당시 간화선 있었다
교조주의가 불교 저해
승풍 개선 위한 목소리 들어야

한국불교간의 종파 전승 이해 >경전에 근거한 말과 설법 >소수 승려 도제독점 방지 위해 도제 인원 제한 >법(法)제자 입실 건당 제도 확립 >한국불교 율법 재조명 >선교율 대중장과 불사문중 대중사 선출 >삼보 귀의 삼처 회향 승풍 진작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학담 스님과 종광 스님(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화랑 스님(동국대 교수), 설우 스님(진불선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플로어에는 교육원장 현승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적 스님과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원용불교 하려면 조계종 이름부터 바꿔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종광 스님(사진)은 11월 대토론회에서 조계종이 종단을 넘어 원용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광 스님은 먼저 “조계종은 선사상의 법을 이었다는 현 종명이 과연 전체 불교의 모든 면을 아우를 수 있는가?”라며 “1962년도 제정된 조계종 종명이 오늘날 불교의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종명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 때부터 ‘너는 조계종이다’, ‘너는 태고종이다’, 혹은 ‘너는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겠는가. 부파불교

종파성 강조는 불교 좁게 만들어 다른 수행법 포괄하는 새 불교로 당시 권력과 아합해 각 부파들의 종파성을 강화시킨데서 불교의 폐단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각 종파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흥하고 박해를 받으면 쇠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파불교의 반성에서 오늘날 종지 구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나친 정통성 강조가 불교의 참면목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조계종이 전승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승 대부분이 허구나 악의적 위조·날조가 있는 전승을 위한 전승도 비일비재했다”며 “사자상승이나 범용으로 불교가 오늘까지 이어 내려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것 또한 선종에서 말하는 범용성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종에서 말하는 범용성이 허락 신화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의 범용성에서



후대에 만들어졌으며 이런 정통성에 얽매어 다른 종파, 다른 수행법들을 외면하는 것은 불교 중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종파명, 종지에 얽매기보다 이 시대 참불교 정신을 펼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 합동 천도재 안내

12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합한 것입니다. 즉 세(世)는 시간의 흐름을, 계(界)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명상수행에 의해 존재의 수준(grade)을 높여(up)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린선원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심 2600주년 성도절을 맞이하여 약2개월 동안 지정기간으로 정진하며, 성도절 전에는 밤샘참선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삶의 질곡 속에 지쳐 명상수행 할 용기와 결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도재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 그리고 선신들과 스님들과 재를 지내는 후손들의 노력으로도 수행에 의한 수준높임(up grade)이 가능하여 그 결과 고통이 없는 극락(極樂)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추천한다는 뜻의 천(薦)과 제도한다는 의미의 도(度)를 함께 붙여 천도(薦度),3업을 맑힌다하여 재(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선원에서는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 특별 합동 천도재(薦度齋)를 봉행하여 동참재자들의 조상님과 자매질손, 배우자, 태중영가를 천도하고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전통작법과 화심곡을 시연하므로 매우 뜻 깊고 풍성한 천도재가 될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